

“먼지 마시고 지내온 30년” 나주 석산개발 인근 주민 고통 호소



25톤 대형 덤프트럭이 끊임없이 드나들며 흙먼지로 평화로운 시골 마을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

나주 남평읍 상곡·오계·반계·오룡·주봉리 일대가 거대한 석산개발로 인해 발생한 먼지와 소음으로 황사가 없어도 마스크와 모자는 생활필수품이 된 지 오래다.

**“문만 열면 하루 500여대 이상 대형차 지나다녀 안전 위협”
“농산물 등 환경파괴·신체 고통 등 주민 생활 막대한 영향”**

이에 지난 23일 고�령의 어르신들은 석산개발 기간연장 반대 대형 현수막을 들고 나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위를 펼쳤다.

30여 년 전,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영업장 운영을 해온 (주) 미래와 '대신산업(주)' 이들 사업체는 지난 2020년 12월 말 석산개발 허가 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나주시청에 9년 연장 허가 신청을 해 마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 손모씨는 “문만 열면

대형차들이 지나다녀 위협에 노출돼 있고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환경 보호와 주민 안전을 위한 수칙을 지키지 않은 기업들과 행정의 무관심 속에서 인근 주민들이 먼지를 먹고 소음에 놀라면서 30년 동안 고통을 견뎌왔다”고 대신산업과 미래산업 석산개발 재연장 허가는 더 이상 안된다고 못 박았다.

또한 “좁은 시골길을 내달리는 일일 500여대 이상의 대형 차량으로 인해 입은 농산물 피해와 드물고 및 주거지 환경파괴 등 신체적,

심리적 고통은 그 정도를 헤아리기 어렵다”며 “석산개발 중지시켜 마을공동체를 복원하라”고 토로했다.

송학전 인근 주민들은 “석산 채굴 30년 동안 폐암으로 주민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비산먼지로 텃밭, 벼농사 등 피해가 막심하다”며 “석산 채굴 30년 동안 주민들의 평온한 삶이 훼손됐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환경대책위는 남평읍 및 다도면 석산·레미콘·아스콘 생산 공장인 미래산업과 대신산업 석산개발에 “1천 여 남평읍민의 반대 서명 의사를 전면 무시하고 ‘기술적으로 허가’를 낸 후 오거리 이장들은 물론 나주환경시민연대에게도 통보조차 하지 않은 채 나주시가 급변 민원을 종결시켰다”며 “일부 이장들의 불가피한 동

의 의견 의사 표명이 있더라도 두 기업에 대한 사업연장을 반대하는 1천 여 명이 넘게 서명한 민원건을 설명회 등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냐”고 호소했다.

또한 “사업자는 주민 생활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점은 없다고 사업계획서에 적시했지만 비산먼지, 소음, 진동, 돌가루 등 환경과 건강 피해 등 주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명약관화한데도 문제점이 없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업자는 당연히 범상 하자 없이 서류를 넣지 않도록 하겠느냐”며 “법만 따지지 말고 우리 편에 서서도 행정을 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윤희기자



먼지 가득한 광주도심

황사경보가 내려진 29일 오전 광주 북구 광주역 인근 도심이 미세먼지로 가득차 있다.

‘전남 으뜸한우’ 키운다

전남도, 브랜드 육성사업 강화
6개 시·군 추가 선정 28억 지원

전남도는 ‘전남 으뜸한우’ 브랜드 확대를 위해 올해 6개 시·군을 새로 선정해 총 28억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2018년부터 시작한 전남 으뜸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은 전남도, 한국축종개발협회, 시·군,

축협, 축산농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까지 4년 동안 13개 시·군에 7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참여 시·군은 고흥군, 강진군, 곡성군, 화순군, 영암군, 무안군, 장성군, 보성군, 장흥군, 해남군, 함평군, 영광군, 신안군이다.

지난해까지 3년 간 3600여 농가가 참여해 암소 2만마리, 송아지 1만4000마리를 선발했다. 일반 한우송아지보다 평균 경매가격이 50만원 더 높은 432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남 으뜸한우 송아지로 선발된 거세우 도축성적 결과 전국과 비교해 체중 2.4%, 등심단

면적 5%, 경락가격 6% 높은 성적을 보였다. 이 때문에 전국 거세우 평균보다 약 100만원 높은 가격을 받고 있다.

전남 축산물 광역브랜드 중 하나인 ‘녹색한우’는 2020년 전국축산물브랜드경진대회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지리산순한우’는 2017년부터 4년 연속 명품인증 획득했다.

박도한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앞으로 더 많은 한우농가에서 브랜드 육성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서해안 철도 연장해야” 전남북 5개 지자체 공동 건의

서해안권 경제협력 벨트 구축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전남·북서해안까지 철도 인프라를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광군은 29일 전남·북 5개 지역 자치단체로 구성된 서해안철도 실무협의회가 영광 청사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서해안 철도 건설’ 반영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제4차 국가 철도망 계획’ 반영 촉구
‘군산-목포’ 141.4km 연결 초대형 사업

택했다고 밝혔다.

실무협의회에는 서해안 철도경유지인 전남 영광·무안·함평군을 비롯해 전북 고창·부안군 등 5개 자치단체가 참여한다.

김준성 영광군수를 비롯해 유기상 고창군수, 권익현 부안군수, 김산 무안군수, 이상희 함평군수 등은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건의문에 직접 서명을 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했다.

이들 5개 지자체장은 서해안 철도 노선이 확장되면 수도권 중심의 교통집중을 분산하고, 대량수송을 통한 물류비 절감으로 침체되고 낙후된 서해안권 경제발전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자체장들이 건의에 나선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은 장항선(전안-익산)을 목포까지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들 지자체장은 “서해안철도는 ‘산업·물류·교통’ SOC망 확대 구축을 통해 한반도 신(新)경제 지도이자, 3대 경제벨트 중 하나인 서해안권 경제협력 벨트 완성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 국제공항과 무안국제공항의 이용률을 높이고, 국가 기반시설 간 상승작용을 극대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래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철도 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2조305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해안 철도는 ‘군산-새만금-부안-고창-영광-함평-무안-목포’까지 141.4km를 연결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영광·서희권기자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

슬기로운
집콕생활!

온라인

위드 코로나 시대! 올해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즐겨주세요

2021 영암왕인문화축제

On-Line Yeongam Wangin Culture Festival 2021

4. 1. 목 ~ 4. 16. 금

www.왕인문화축제.com

YouTube 영암왕인TV

왕인ONTACT

- 특집 다큐 ‘왕인박사 랜선으로 일본가요!’
- 왕인박사 학술강연회
- 제31회 왕인박사 추모 한시지상백일장
- 천인릴레이 천인천자문
- 집콕놀이! 왕인키트
- 집콕! 챌린지
- 집콕ON! 글로벌 왕인 홍보단
- 왕인박사 추모 헌다례와 문화 강연

기찬영암ONTACT

- 유튜버와 떠나는 3인 3색 랜선 영암여행
- 기찬영암 브이로그
- 영암여행 온라인 사진·영상 공모전
- 혜택 가득! 기찬영암 라이브 커머스
- 온라인 영암 마켓
- 온택트 영암예술무대
- 온택트 개막콘서트
- 공개방송 영암온에어 ‘즐거운 오후 2시’ (11개 읍·면)
- 온택트 폐막행사

영암군 YEONGAM-GUN | 주관 | 영암군향토축제추진위원회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 전라남도 | 한국관광공사 | 문의전화 | 061-470-2347